

한·아랍에미리트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오바이드 휴마이드 알 타이어 두바이상의 회장,

오마 알 샴시 아랍에미리트상의연합회 회장,

한국의 손경식 회장과 서영태 경협 위원장,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서 어제와 오늘을 지낸 제 소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을 보며 저는 이 땅이 신의 축복이 비껴간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 짐작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은 이 나라에 석유를 주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 주었고 그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라인 강의 기적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라인 강의 기적이나 한

강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활력 있게 뻗어 나가는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 경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자 저와 우리 경제인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순방했습니다만 그 어느 나라에 동행했던 경제인보다 많은 경제인들이 동행했고, 어느 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양국 경제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또 저와 우리 경제인들은 이곳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중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이고, 한국 경제는 석유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의 18%, 가스의 15%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석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변함없이 석유를 공급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는 한국의 석유기지에 공동으로 석유를 비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약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를 포함해 100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우리는 27억 달러의 상품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고, 또 8억 달러 정도의 건설공사를 수주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아랍에미리트에 주고, 35억 달러를 되받아 갔다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활력에 넘치고 있는 이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에서 돈을 좀더 벌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석유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이곳 아랍에미리트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거저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은 아주 높은 건설 기술을 가지고 지난 1960년대부터 중동에서 약 2천억 달러의 공사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약 54억 달러에 해당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이곳 호텔도 우리 한국 기업이 지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은 이제 건설 공사만 수주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땅을 사고 또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가 성공을 거둔다면 아마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약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 정보통신,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가장 아름답고 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경쟁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곳에 와 보니까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같은 훌륭한 기술로써 서비스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아랍에미리트에 내려서 본 푸른 숲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막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곳 두바이에서,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숲은 인류문명이 만든 그 어떤 유적보다도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만든 이 푸른 숲, 아름다운 도시는 창조와 평화, 그리고 공존이라는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훌륭한 업적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막을 숲으로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

러분이 만든 이 숲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사람이 가진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숲을 가꾸기 위해서 쓰고 있는 물의 상당량이 한국 기업이 만든 설비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의 숲을 보면서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실현가능한 하나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가까운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전기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변기술은 각국이 각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로 건설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보다 싼 담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핵융합 발전 기술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도 한국이 이곳에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 넓은 사막을 전부 적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우리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어제와 그제 이곳 두바이에서 와이브로(Wibro), DMB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모든 가전제품을 조정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와 교통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텔레매틱스 기술에 관해서도 전시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바로 두바이와 같이 고도의 지식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경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높은 IT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실용 기술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 기술들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혼자서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IT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는 이곳 중동의 허브로서,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각기 최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빈손으로 출발해서 40년 만에 섬유·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항공기술도 부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꼭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은 늦게 출발하고 빨리 따라잡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 이곳 두바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모두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두바이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눠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 허브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두바이가 한발 앞서 가고 있으므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있는 모든 것을 하고도 항상 플러스 알파를 더 이행하는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수로관 일부가 파열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공사에서 우리 한국이 계약서 문제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높게 평가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에서 TV를 주문하면 도착하는 데 며칠, 설치하는 기술자가 오는 데 며칠, 근무시간이 끝나면 다음날로 미뤄서 또 며칠,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TV를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줍니다. 또 사무실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일할 수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해 줍니다. 계약서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한국 기업들은 성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같다면 단연 한국이고, 만일에 좀 비싸더라도 한국이 결국 싸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 근로자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기업인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위해서 최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